

[ 사회 ]

# “수능 등급제 피해” 억울함 호소 속출 내년 재수생 양산 예고

### 학원가 재수 문의 쇄도... 학교 진학지도 골머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속출하면서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08학년도 수능에는 총 55만588명의 수험생 중 졸업생이 12만8천819명으로 지난해 졸업생 응시자 15만2천633명에 비해 2만3천814명 줄었으나 내년엔 오히려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특히 대입 수험생 가운데 통상 30%가량이 재수를 한다고 볼 때 재수생 자연 증가분만 7천여 명으로 추산돼 재수생 증가 폭은 확연히 눈에 띌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작년 이 무렵 수능 등급제 등으로 전형의 틀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이 재수를 기피하는 추세가 짙었지만 올해는 수능 성적 이 발표된 당일부터 재수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 대성학원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등급제 첫 시행의 부담으로 재수생이 그 이전에 비해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원래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수치는 늘어날 것이다”며 “특히 모의고사보다 실감스러운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일제감치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라톤아카데미 서정현 원장은 “정부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체감하는 수능의 영향력은 80~90%로 아주 높아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수능전부터, ‘올해의 경우 내신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능에 크게 신경을 못 썼으니 내년(재수) 수능에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3 교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고, 이 같은 결과를 억울하다고 생각해 재수를 결심하는 것.

광주 송일고 김성근 진학실장은 “이전 수능에서는 언어를 조금 못했을 경우, 수리나 외국어 점수로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게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어느 특정 영역에서 일정 기준의 등급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등급에 불만이 학생들은 “원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광주 풍암고 문영철 진학실장은 “진학지도는 통상 지난해 자료와 비교해서 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것이 안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 진학지도 어떻게 하라고...

### 고3 담임 임용고시 채점요원 차출

광주시교육청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입시 상담에 주력해야 할 고3 담임을 중등교원 시험 채점요원으로 차출, 논란을 빚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등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올해의 경우 꼼꼼한 진학지도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담임교사가 일주일 이상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J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2명이 9일부터 8박9일 동안 모처에서 실시되는 ‘2008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채점을 위해 출장을 떠났다. 이 학교 한 학부모는 “수능 성적 나온 것이 엇그제인데 어떻게 고3 담임이 일주일 남는 출장을 떠날 수가 있느냐”며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이 상담을 해야지, 옆 반의 교사들에게 얼마나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차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담임이 없는 반 학생들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채점을 위해 차출된 일선 교사들은 과목별로 모두 27명, 각 시·도교육청은 시험 응시인원에 비례해 채점 교사들을 선발한다. 채점을 위해 뽑힌 교사들은 이 기간 동안 비밀리에 마련된 공간에서 합숙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2일 이후로 각 과목의 장학사들이 채점을 위해 교사들을 차출했다”며 “그러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교사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실시된 2008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는 광주에서 27개 교과 212명 모집에 2천461명이 응시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우산 준비하세요**  
맑은 후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12월 10일**  
(음 11월 1일)  
◇전국날씨

광주	흐려져 비	0~8℃
주요	흐려져 비	1~8℃
포항	흐려져 비	3~8℃
수도	흐려져 비	2~8℃
대구	흐려져 비	-2~8℃
대전	흐려져 비	-1~8℃
부산	흐려져 비	-2~8℃
인천	흐려져 비	-2~8℃
서울	흐려져 비	-1~8℃
경기	흐려져 비	-2~8℃
충청	흐려져 비	-1~8℃
전남	흐려져 비	-1~8℃
전북	흐려져 비	-1~7℃
강원	흐려져 비	-4~7℃
제주	흐려져 비	7~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1:47 썰물 < 07:19  
여수 밀물 < 09:33 썰물 < 02:54

▲해돋이 07:29 ▲해질 17:20 ▲달돋이 08:02 ▲달질 17:26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씨						
최저/최고	4/10	2/9	3/9	0/8	-1/9	-1/8

## 수리 '가' 원점수 같은데 등급 달라

### 감점 과목마다 희비

수능 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리 가형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현상과 더불어 원점수는 같아도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입시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수리 가형에서 원점수 기준으로는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라도 공통과목에서 감점이 됐느냐, 선택과목에서 감점이 됐느냐에 따라 다른 등급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가형은 총 30문항 중 1~25번까지는 공통과목, 26~30번까지는 선택과목 문항으로 돼 있으며 공통과목은 문항이 모두 같지만 선택과목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어 선택과목에 따라 문항이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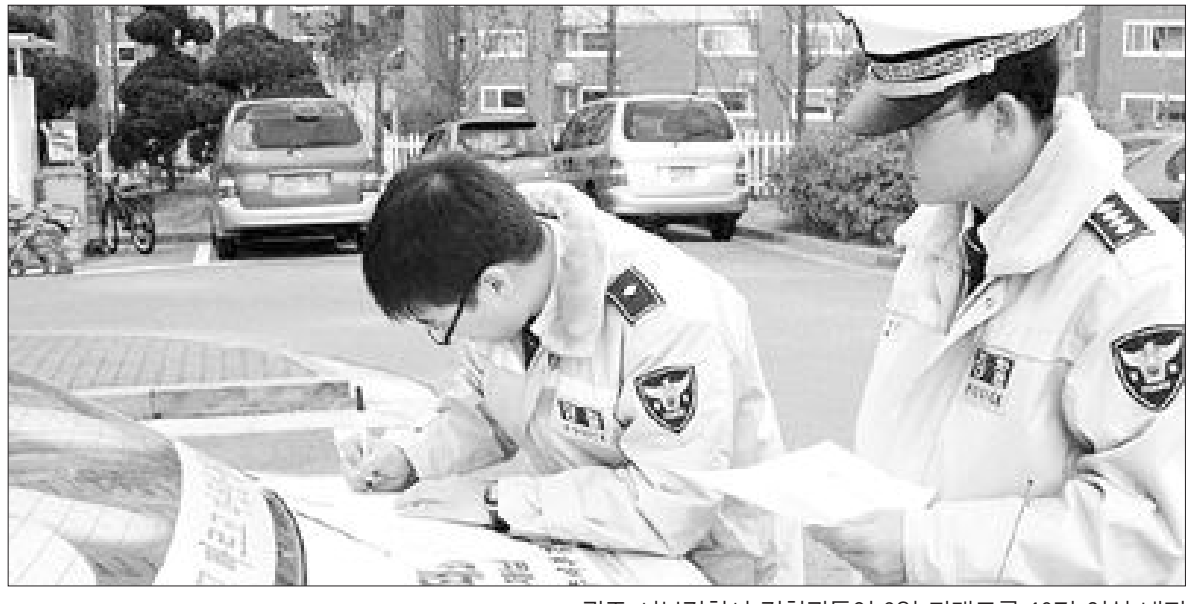
예를 들어 A학생은 공통과목에서 4점짜리 두 문제를 틀렸고 B학생은 공통과목에서 4점짜리 한 문제, 선택과목에서 4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다면 둘의 원점수는 모두 92점(100점

▲표준 점수=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른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점수. 선택과목에 따른 유틸리티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만점)으로 같지만 등급으로는 A가 3등급, B가 2등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과 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중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려 97점이 된 학생은 2등급이 됐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는 97점인데도 1등급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어·외국어 등 다른 영역이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하는 것과 달리 수리영역, 그 중에서도 수리 가형은 표준 점수로 등급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수리 가형의 경우 선택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틸리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과태료 체납 차량 강제 견인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9일 과태료를 10건 이상 내지 않은 체납차 1천155명의 차량에 ‘강제견인·공매에 들어간다. 광주 시내에서 신호·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은 341억7천800만원(61만2천 건)이며, 1천만원 이상 과태료(범인 포함)는 15명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전남 12일까지 겨울비** 광주·전남지역에 오는 12일까지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광주·전남지역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후 늦게 남서해안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다”며 “예상 강수량은 5~10mm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교통사고 없는 세상 만들자

광주일보·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공동 캠페인

### 안전 운전 실천하는 습관 기립시다

#### ⑩ 전문가 기고

지난해에만 교통사고로 34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보면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이 지난 운전자들이 전체 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차량 운전이 적응하는 시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규정속도와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탓이다.

도로가 험악할 때는 차량 속도를 평소보다 20~50%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지난 2004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날씨별로 분류하면 전체 468명 중 ▲맑은 날 366명(78.2%) ▲비 오는 날 56명(12.0%) ▲흐린 날 41명(8.8%) ▲눈 오는 날 5명(1.1%)이었다. 또 치사율은 비 오는 날이 4.7%로 맑은 날 2.9%보다 1.6배 높았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브레이크 디스크 등 차체에 물기가 묻어 제



<이기형 교수>

동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제동거리가 40~50% 길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때문에 도로가 얼고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갑속운행을 해야 한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는 1초에 17m를 달린다. 1초만 방심하면 눈을 감고 17m를 달리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34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위험한 순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2초 이상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적게만 늦겨지는 이 2초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게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끝>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동해초·남·노사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구공급 441만원(보일러+배관+배선) 대비 특별보급 398만원 (보일러+배관+배선) (33% 할인)

부족도 비뚤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업개발부  
010-9469-9373  
062)673-4981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 'S' 라인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시모스킨

062)221-1760 062)510-7851 062)939-5800 062)637-1575